

## 1115억 광주 BTL 하수관거사업 설계와 다른 자재 썼다

### 재용품 사용 부실시공 의혹...감리단 검사 의뢰

광주시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Build-Transfer Lease)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설계와는 다른 자재가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업체들은 지나치게 낮은 단가에 맞추기 위해 신제품이 아닌 재제품을 공사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임대형 민간사업의 경우 민간투자자가 거액을 들여 기반시설을 건설한 뒤 지자체로부터 장기간 임대료와 운영비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사업비 1115억7700만원이 투입되는 '2007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복구 문흥·오차·용봉·우산·매곡·삼각·일곡·각화·두암동 등 9개 동에 걸친 150km 구간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것이다. 시공은 SK건설이 중심이 된 광주잠문(주) 컨소시엄이, 책임감리는 (주)삼안이 각각 맡고 있다.

2013년 완공 예정인 하수관거는 이후 20년간 이 컨소시엄이 광주시로부터 임대료와 운영비, 이자 등을 받아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SK건설이 납품업체로부터 이번 공사의 핵심부품인 맨홀 일부에 대해 애초 설계와는 다른 제품을 공급받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리를 맡고 있는 (주)삼안 관계자는 "설계대로 안 된 부분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수도권업체의 특수한 제품으로 설계가 돼 있어 성능에 이상이 없는 지역업체의 생산품으로 대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문가와 납품업체 관계자는 이를 정면 반박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지역에도 설계대로 맨홀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고, 다른 제품을 공급받으려면 설계 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고 주장했다. 토목공학을 전공한 한 전남대 교수도 "설계와 상관없이 자재를 공급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일부 업체들은 이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PE(폴리에틸렌) 삼중벽관도 재제품이라고 주장했다. SK건설이 낮은 단가를 요구해 정상 제품 사용할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는 것이 업체들의 주장이다.

PE삼중벽관을 생산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재생 원료를 쓰는 제품은 정상제품보다 절반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며 "500mm관의 경우 현재 해당 단가가 37만원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감리업체는 최근 공급된 삼중벽관에 대한 검사를 한국화학융합시험원에 의뢰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공업체측이 시방기준에 맞으면 설계서와 다른 자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와 현재 이를 확인 중"이라며 "납품업체 선정 등 공사의 모든 절차를 투자자인 시공업체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해명했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 키스해링 광주展 오늘 개막

7일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열린 '키스 해링 광주전' 개막식 참석 관람객들이 키스 해링의 대표작을 감상하고 있다. 현대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팝아트의 거장 키스 해링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전

시는 8일 정식 개막해 오는 2011년 2월27일까지 계속된다. 전시작은 '남아 프리카에 자유를' '빛나는 아이' '회상' '침묵=죽음' '아이콘' '팝스' 등 모두 150점으로 아시아에서 열리는 키스 해링 관련 전시로는 최대 규모다. 관람 문의 062-613-5396. <관련기사 12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서울대 경영 565점·자유전공 561점

### 입시전문학원 분석...표준점수 최고 11점 상승

지난달 18일 치러진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주요 영역이 지난해 보다 어렵게 출제돼 수리 가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무려 11점이나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는 6점, 수리 나형은 5점 올랐으며, 원점수 만점자는 지난해(463명)의 13분의 1인 35명에 그쳤다. 언어·수리·외국어 세 영역 만점자(11명)도 6분의 1로 줄어 상위권 변별력이 그만큼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수능 시험 채점 결과를 발표하고 수험생들에게는 8일 오전 성적을 통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8면> 채점 결과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 언어 140점, 수리 가형 153점, 수리 나형 147점, 외국어 142점으로 작년 수능보다는 각각 6점, 11점, 5점, 2점 높아졌다.

입시 전문가들은 통상 수능 난이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전년도와 비교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번 수능은 지난 1994년부터 시행된 수능시험 전체와 비교해서도 가장 어려웠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전부 표준점수 최고점(원점수 만점)을 받은 수험생이 11명에 불과해 작년(68명)보다 크게 줄었다.

1~2등급 구분점수(등급컷)는 언어 129점, 수리 가형 132점, 수리 나형 139점, 외국어 132점이었다.

입시 전문학원인 이투스청솔·진학사는 이날 수능 채점결과를 분석, 서울대 경영대의 예상 합격 점수대를 558~565점으로 제시했다. 예상 합격 점수는 표준점수 800점 만점 기준으

로 산출한 것이다.

이투스청솔은 서울대 경영대는 558점, 자유전공학부는 556점, 사회과학 계열은 555점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진학사는 각각 565점, 561점, 558점으로 예상했다. 의예과 의 경우에는 이투스청솔이 560점으로, 진학사가 568점으로 예상했다.

연세대는 경영학과 553점~556점, 자유전공학부 549점~551점, 영문학과 542~546점으로 전망했다. 의예과와 치의예과는 각각 558점~564, 556~562점으로 합격선이 형성됐다. 고려대는 경영대학이 552점~556점, 정경대학이 550점~553점이었다. 의과대학은 554점~558점으로 예측됐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시민 여론 무시한 시의회

### 유급보좌관제 끝내 강행...도의회도 오늘 의총

광주시의회가 논란이 돼온 유급보좌관제를 일부 반대에도 강행하기로 한 데다 전남도의회까지 도입을 추진키로 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7일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사실상 유급보좌관제가 될 '의정관련 조사활동 지원 기간제 근로자'를 내년부터 채용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시의회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과 교육위원의 보좌관 25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이번 예정위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예산 3억5000만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애초 서울시의회에서 편법으로 활용해온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 명목으로 6억4000만원의

증액을 요구할 계획이었으나, 여론의 반발과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전환했다.

시의회는 기간제 근로자는 행정차처위·환경복지위·산업건설위 각 6명, 교육위 7명 등 총 25명을 각 상임위별로 채용해 1인당 1220만원의 보수로 연간 10개월간 활용할 계획이다.

이춘순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의정서포터즈 관련 보좌관제 예산이 편법이라는 논란이 있어 기간제 근로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임위별 기간제 근로자가 사실상 개인별 유급보좌관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편법 논

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시의원들이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시의회가 예결특위에서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다분히 이례적인 일인 데다 집행부 측의 '증액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광주시와의 사전 교감 논란도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유급보좌관제를 강행할 경우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도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유급보좌관제 도입 예산 10억원의 증액을 집행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최권일·김지혜 기자 cki@

### 최현 문화수도조성위원장 재선임

#### 위원 9명 위촉

대통령 직속 제4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이하 제4기 조성위)가 7일 공식 출범했다. 제4기 조성위는 무엇보다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의 해결을 통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기 완공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최현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은 재위촉하고 5명의 각계 전문가를 신규 위원



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새로 선임된 위원은 의재문화재단 허달재 이사장, 광주대 김상균·이봉규 교수, 서울예술대 박기태 교수, 동산대 박찬중 디지털콘텐츠연구센터장 등이다. 이들 위원의 임기는 8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2년간이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정식 모집 **12월 17일~22일**  
 [가군 원사점수] **보육교사교육원 12월 1일~1월 7일**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 전남과학대학

세상을 향한 **도전정신**  
 그리고 멈추지 않는 **열정**

해외 디자인공모전 4관왕  
 조진수 & 문지애  
 - 디자인학부 제품디자인 전공

- 2010년 독일 iF Lebensträume / Winner 수상
- 2010년 독일 Reddot / Winner 수상
- 2010년 미국 IDEA / Silver 수상
- 2009년 일본 OPUS Award / Winning Works 수상

**PRIDE CHOSUN**

미래를 향한 열정, 꿈을 향한 도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  
 조선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이 펼쳐집니다.

2011학년도 정시 **가나타**군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 2010.12.18(토)~12.23(목)  
 입학문의 | 062-230-6666, <http://ibhak.chosun.ac.kr>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